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56.9	16.4	129,500	0.4	25.7	12.6	35.0	902	43.3	0.6	0.6
현대중공업지주	6,351.8	20.7	390,000	1.8	2.9	4.3	2.4	53	4.4	0.7	0.6
현대일렉트릭	654.2	5.2	64,100	-0.2	-0.3	-183	-43.8	6.1	5.3	0.5	0.5
현대건설기계	1,170.3	9.0	118,500	1.3	-4.0	-23.3	-29.9	7.5	5.6	0.8	0.7
삼성중공업	4,964.4	17.9	7,880	0.9	19.0	7.7	21.8	49.7	24.7	0.5	1.0
대우조선해양	3,350.2	8.3	31,250	-1.6	19.7	20.9	124.8	72	17.0	0.9	13.5
현대미포조선	1,972.0	9.9	98,600	-0.2	9.8	102	25.3	21.3	15.4	0.8	3.6
한진중공업	281.0	7.0	2,650	0.2	7.3	-20.7	-19.9	53.3	13.3	0.4	0.4
현대엘리베이터	3,123.2	22.7	115,000	0.0	10.0	9.0	111.4	20.3	19.8	28	25
두산밥캣	3,629.0	25.9	36,200	-1.1	4.8	16.6	2.4	133	125	1.0	1.0
현대로템	2,681.8	2.1	31,550	1.8	1.0	-2.8	68.3	40.7	27.7	1.8	4.5
하이록코리아	324.0	48.9	23,800	2.1	3.3	-19.9	5.8	108	9.9	0.9	0.9
성광밴드	361.8	16.4	12,650	7.2	21.1	8.1	26.8	1,118.2	45.4	0.8	0.8
태평	375.0	13.4	14,150	9.3	19.9	13.7	17.4	84.5	41.3	0.9	0.9
두산중공업	1,739.6	14.9	14,850	-0.3	0.7	-16.3	-3.3	24.6	9.0	0.5	0.5
두산인프라코어	1,958.8	19.7	9,410	0.1	-4.5	-6.8	8.3	62	5.7	1.0	0.9
HSD엔진	140.4	4.3	4,260	3.1	23.8	N/A	65.8	-164	-21.6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4,435.1	14.5	45,500	2.4	14.5	-0.2	-4.1	38.3	28.3	3.8	3.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84.3	11.7	26,600	0.2	15.4	-13.1	-25.2	344	18.9	0.6	0.6
LIG넥스원	804.1	9.4	36,550	7.2	16.0	-29.6	-38.9	39.1	18.7	1.3	1.2
태웅	297.1	4.7	14,850	2.1	0.0	-16.8	-23.3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09.9	5.5	7,780	0.1	14.2	24.9	54.1	-39.9	20.9	27	25
한국카본	300.3	13.9	6,830	0.3	18.8	12.9	27.4	792	21.0	1.0	0.9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0p(+1p WoW), 중고선가 지수 99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99p를 기록함. 러시아 Sovcomflot은 자국 내 Zvezda 조선소에 11.4만DWT급 LNG추진 트커 2척을 발주함. 중국 Wuhu 조선소는 Shishi Dingxin Shipping에서 6.4만DWT급 벌크선 1척을 수주함. (Clarksons)

윤문균 현대삼호 사장 "국내 선사와 협상중...벌크선 수주 임박"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에이치리아인 해운과 벌크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10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힘. 구체적인 척수를 비롯한 계약은 논의 중이며, LNG추진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성이 높음. 현대삼호는 올해 34.92억 달러를 수주했고, 이는 연간 수주목표 34억달러를 초과함. (EBN)

'백기사' KCC, 범현대가 지분 내놓나

KCC가 3.4조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미국 특수소재 업체 모멘티브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짐. KCC는 컨소시엄을 통해 8천억원의 자금만 보태면 되는 상황임. KCC는 자금조달을 위해 범현대가 지분 9천억원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대중공업 6.76%, 현대일렉트릭 6.42%, 현대건설기계 4.15%를 보유함. (더밸)

Odfjell says no to scrubbers

케미컬 선사 Odfjell은 IMO 환경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 장착 대신 저유황유 사용 계획을 밝힘. 회사 관계자는 1) 운항 시간 중 약 50%를 항만에 기항하고 있으면, 2) 수입 60%를 유류 할증료 조항이 포함된 용선계약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 장착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힘. (TradeWinds)

삼성중, 곧 LNG선 수주

삼성중공업은 일본 선사 NYK에서 LNG선 1척을 곧 수주할 전망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NYK는 Total과 7년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2020~21년 인도 조건으로 삼성중공업에 발주할 전망임. 또 1척을 추가 발주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며, 추가 발주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선박뉴스)

Samsung Heavy in talks to resolve Nigeria dispute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Egina FPSO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현지업체 LADOL과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중요으로 알려짐. LADOL 측은 삼성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운영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삼성중공업은 항구 사업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상황임. (Upstream)

정책 지원 '녹장'에 초대형선박 20척 건조 차질

현대상선은 이달 초까지 초대형 선박 20척 발주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늦어지고 있음. 정부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에도 자금지원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발주지연 우려가 있는 반면,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달 안에 건조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함. (EBN)

Capesize slow steaming effect diluted by spike in scrubber uptake

DNB Markets에 따르면 스크러버 장착이 선사에게 좋은 투자라고 주장함. 2020년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2,300척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기준 연료 수요 15%를 감당하는 규모로 예상됨. 스크러버 장착선은 연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며, 특히 연료 소모량이 큰 대형 선박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전망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0.1%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